

내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

시민의 '쓸 데 있는 궁리' 도심 곳곳에서 만나세요

광주 폴리 II '광주전 독서실'이 차마 버리지 못한 옛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편지와 물건을 대신 파쇄해 주거나 판매해주는 '아름다운 이별가게'로 꾸며졌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건물인 제문헌 옛 용봉제는 시민들의 정원으로 꾸며지고, 게릴라 가드닝과 관련된 워크숍이 열린다. 일곡마을 주민들은 각자가 가진 생활 노하우를 담아 '사용설명서'를 만들었고, 카페가 밀집해 있는 동명동과 장동 일대에서는 커피찌꺼기 리사이클 상품을 개발한다.

광주 시민들과 시민단체, 또 주민들로 이뤄진 팀들이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참여 작가로 도심 곳곳을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꾸몄다.

2014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프로그램 '쓸 데 있는 궁리' 20개 참가팀이 임동성당, 광주 폴리, 원당숲 공원, 광주여고 등 광주지역 20곳(표)에서 두 달간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2일부터 전시, 11월9일까지 선보인다.

참가팀들이 사랑, 이별, 환경, 마을, 죽음, 급식, 커피, 세월호 등 일상의 소소한 고민과 불편함부터 정치,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 머리를 맞대 '궁리'한 끝에 선보이는 결과물들이다. 특히 단순한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퍼포먼스, 워크숍 등과 함께 진행된다.

전남대 사거리 인근 '카페 난생처음'에서는 '사랑의 성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러브픽션팀은 광주에서 발굴한 '사랑 고백하기 좋은 30곳'을 사랑의 성지로 선정, 사진과 영상 등 '사랑의 성지 맵'으로 연인들에게 데이터 코스를 제안한다. 사랑의 성지에서 인증 샷을 촬영해보면 음료를 10% 할인해준다.

광주 폴리 II '광주전 독서실'은 이별한 연인들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했다. 옛 연인과의 편지를 대신 파쇄해주고, 옛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매주 목~금요일 오후 5~8시 운영된다.

금남지하상가 광주 폴리 II '기억의 상자'에서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방관자들은 타인의 죽음은 물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 9~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5~9시 기억의 상자에서 영정사진을 촬영해준다.

남구 양림동 양촌길에는 1930년대 은

2014 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 프로그램

주제	팀명(장소)
추억은 힘이 세다	두벅두벅(옛 광주여고 벽면)
마음의 시선	생크북(blog.naver.com/gthinkbook)
엄마, 이젠 버릴 수 없어요	김진애(광주극장)
아름다운 이별가게	아름다운 이별가게(폴리2 광주전 독서실)
푸른길에서 놀-궁리, 살-궁리	푸른길 해설사(동구 학동 푸른길 기차)
일곡마을-일곡인의 급식 따라잡기	광주일곡 학생회(광주일곡)
광주 1930 골목 밝히기 프로젝트 '영란등을 켜라'	광주1930(남구 양림동 양촌길)
세월호 진상마중길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전시팀(지산사거리)
나는 죽지 않았다	방관자들(폴리2 기역의상자)
소슬야담(蕭瑟夜談) - 지구(地畵), 아니, 지구(地球) 탈출기	열혈지구(임동 성당)
팔찌형 자전거 백미러	N.R.Y.U(동구 지산동 카페 REC)
일곡마을 1,000% 활용하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사용설명서)	일곡마을회의 (북구 일곡제1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람같은 녀석들의 별별궁리 제작소	문화행동 S#ARP(남구 중앙로 카페 indigo)
청춘 아고라	점선면(동구 서석동 청춘 아고라)
카드캡치! 7드래곤볼즈!	중이염(남구 월산동 193-1번지)
원당숲 모태보태마켓	원당숲 이웃들(광산구 장덕동 원당숲)
동명동(장동·서석동·동명동) 축축한 커피 패키지	동명축축(사막.ORG, 바니뉴니스커피숍 중심)
사랑의 성지 프로젝트	러브픽션(북구 카페 난생처음)
마을예술장작을 위한 산수마을 아틀리에 만들기	산수마을 풀꽃아트(동구 산수동 384-2번지 일대)
게릴라 가드닝 in gwangju	가가 프로젝트(북구 용봉제)

사랑·죽음·환경·마을·커피

세월호·정치·사회 문제까지

임동성당·양림동 등 20곳서

퍼포먼스·워크숍 함께 진행

방울꽃 모양의 가로등 '영란등'이 설치돼 밤거리로 수놓는다. 광주 1930팀은 '광주 1930 골목 밝히기 프로젝트-영란등을 켜라'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1930년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란등을 제작해 설치했다. 매주 수요일 인근 광주 1930아지트 방문객에게는 미술가수가 무료제공된다.

작막한 도시 풍경을 바꾸는 녹색문화 운동 '게릴라 가드닝'도 시도된다. 게릴라 프로젝트팀은 자신들의 동네인 광주 용봉제 생태습지공원에서 모여 폐자재를 활용한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9~10월에는 '씨앗 폭탄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수마을 풀꽃아트팀이 산수동에서 '마을예술장작을 위한 산수마을 아틀리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 뒷밭이 조성되고 있다.

두벅두벅팀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은 힘이 세다'를 광주여고 담벼락에서 진행한다. 9~10월 마지막 주에 추억의 비디옷을 상영하고 추억찬치를 개최한다. 9월 중순에는 '광주여고 벽면 전시'를 오픈한다.

중학생들이 마을을 재해석한 프로젝트도 있다. 중이염팀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월산동을 주제로 '마을 트럼프 카드'를 제작했다. 과정을 통해 마을을 이해하고 유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다. 열혈지구팀은 점차 유명해지고 있는 일부 광주 도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들은 오는 7일과 10월31일 오후 7시 임동 옛 나산클럽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는 예술장르 뿔뿔 형식의 퍼포먼스'를 연다.

광주지방법원 오르막길 가로수에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이 담긴 메시지가 임혀졌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전시팀'은 '세월호 진상마중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엮은 뜨개전으로 나무를 감싸고, 또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진상마중사랑따뜻이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시민참여프로그램 '쓸 데 있는 궁리' 개막식은 1일 오전 11시 문화놀이터로 꾸며진 동구 학동 푸른길공원 푸른길기차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나희덕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제6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나희덕(조선대 문창과·사진) 시인의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문학과학지성사)이 제 6회 임화문학예술상(상금 1000만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인은 정제된 언어와 따뜻한 은유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펼쳐왔다. 2009년 '야생사과'(창비) 이후 5년 만에 펴낸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은 상실과 부재의 아픔을 깨어난 사랑의 힘에 주목한다.

심사위원들은 "나 시인만의 언어적 질감과 함께 죽음과 그 '너머'를 사유하면서 절망과 상처를 넘어 자신이 걸어온 시간에 대한 조용하고도 결연한 목소리에 다다른 답답하고도 견고한 과정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임화문학예술상운영위원회와 소명출판이 공동 주관하는 임화문학예술상은 근대문학사 연구의 기초를 닦은 임화(1908~1953)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되었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창원대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예니씨 광주성악콩쿠르 1위

내달 24일 '정율성 축제' 협연

2014 광주성악콩쿠르에서 소프라노 이예니(24·한양대 줄·사진)씨가 1위(상금 1500만원)를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성악콩쿠르 운영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콩쿠르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 축제' 일환으로 지난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졌다.

이씨는 이번 경연에서 조두남 가곡 '학', 'Spring'(D. Argento), 'Regnava nel silenzio'(G. Donizetti) 등 세 곡을 불러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씨는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 축제' 오프닝 무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2위 소프라노 노선우(이화여대 줄), 3위 바리톤 최기돈(한양대 줄), 정율성가극상 테너 조민규(서울대), 우리가극상 소프라노 임은송(한양대 줄), 반주상 피아니스트 최사랑(한예중 예술전문사 오페라코치전공 줄)씨가 수상했다.

이번 경연에는 국내·외에서 총 96명이 참가해 2차례 예선을 거쳐 본선은 모두 10명이 참가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용봉동 용봉제에서 열린 가가 프로젝트 팀의 '게릴라 가드닝 in gwangju'.



푸른길 해설사들이 만든 '푸른길 기차 아지트'.



점선면 팀이 새롭게 꾸민 동구 서석동 문화공간 '청춘 아고라'.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남남남 남남남 남남남

북북북 북북북 북북북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

박수홍

박수애

양준혁

김은아

TV 조선

예정통일!

양은커블